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9, 베드로전서 1:1-2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9회기
베드로전서 1:1-2

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도서 조사에서 전략적 구절로 식별한 구절 중 하나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실제로 예비 진술이며, 이는 또한 1:1과 2의 일반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포로들에게 그리고 비두니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사실상 선거인(Elector)인데,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문제, 즉 선택이라는 신학적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보고 다양한 유형의 증거, 우리가 논의한 가능한 증거를 살펴보면 방법을 살펴볼 때 16~17가지 가능한 증거 유형 목록 중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예비 정의입니다. 물론 이것은 용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맥락은 항상 관련성이 있습니다.

단어 사용법은 용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적 간증,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경적 간증이 관련될 것이라는 확신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원, 아마도 단어 형성의 역사 및 다른 사람의 해석은 항상 관련 유형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적인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단어는 eklektos(선택됨)입니다.

Bauer-Denker는 이를 선택됨, 선택됨, 선택됨 또는 탁월함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기본 정의입니다. Bauer-Danker의 그리스어-영어 사전 항목 상단에 있는 기본 정의입니다. 그가 택함을 입었다고 말할 때,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과 선택을 행하는 자를 강조하면서 뽑힌, 선택된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것을 선택 또는 우수성으로 정의하는 한, 이는 여기서 선택된 것이 독자 및 그들의 자질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 또는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A등급 특선 고기가 있습니다. 엄선된 고기입니다. 따라서 그는 독자의 질, 귀하의 선택 또는 우수성에 관해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Bauer-Danker의 두 번째 정의에서 가능한 추론일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골라낸, 선택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들이 선택된 더 큰 그룹으로부터의 분리가 강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Bauer-Denker가 여기서 어원을 설명하고 이것이 바로 단어 형성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eklektos에서 유래했으며 그리스어로 '부르다' 또는 '말하다'를 뜻하는 ek(밖으로)와 레고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내어 외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하나는 더 큰 그룹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비 정의나 어원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상황에 따른 증거가 가장 중요한 유형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인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예정됨, 즉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어 원문에는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되거나 선택된 자, 카타 프로그노신(kata prognosin). 예지라는 용어인 예후는 분명히 미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의 동사형이 예견, 운명, 또는 예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명사입니다. 그 명사의 동사 형태는 1장의 뒷부분인 20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예지적이었습니다.

고맙게도 RSV는 명사와 동사를 같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번역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독자들과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명사의 동사 형태가 1장 20절에 사용되어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아심을 언급하고 창세 이전의 예지가 여기 11절에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종종 하나님의 예지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나 뜻, 어쩌면 예정까지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아셨거나 미리 정하셨는지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떤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성한 선택, 이 신성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분자 하나를 만드시기 전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제 이 선택의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된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버지 되심은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행위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문맥에서 묘사됩니다.

베드로가 여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주목하십시오. 실례합니다, 1장, 3장 그리고 그 다음에서.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크신 공화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함이니라 그러면 그분의 아버지 되심은 직접적인 문맥에서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행위라는 용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혹은 선택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추론해 보세요. 이 선택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은 기계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한 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버지이신 그분의 본성과 연속적이고 보완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을 이해합니다. 이 증거에 따르면 그것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이 독자들이 성령에 의한 순종의 수단으로 순종을 위해 선택되었거나 선택되었음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위해 선택된 선택의 대상입니다. 또는 순종을 위해 선택된 것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는 이번 선택이 순종이나 거룩함에 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기능적 선택, 즉 순종의 기능이나 거룩함의 기능을 선택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특정한 배경 지식 등을 가지고 해석하는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에서 선택을 이해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는 그것을 구원론적으로 또는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선택은 구원을 경험하도록 특정 사람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도록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능적입니다. 즉,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증거는 여기서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문맥에서는 이 독자들을 분산된 유배자들로 묘사하고(1:1), 나중에는 이방인들과 유배자들로 묘사합니다(2:11).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한 명칭은 지중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청중을 암시하거나 암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책 자체 내의 다양한 데이터를 볼 때 보았듯이 독자층, 맥락, 그리고 역사적 배경, 나는 또한 성경적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여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대체로 이방인 교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 맥락 및 역사적 맥락, 성경적 증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들이 고국에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망명자들에 대한 언급은 은유적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책의 맥락은 그들이 그들의 참된 하늘 본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외국인과 유배자로 살고 있었으며, 이 외국인 유배 신분은 특히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신성한 출생과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사악함에 대한 그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이 구절에서 이러한 용어로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이 구절들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구조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드로전서의 주요 쟁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그의 크신 긍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 제시된 그리스도인 존재 구조의 중심에는 그들이 거듭났다는 사실,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 즉 새로운 신성한 탄생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늘 희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그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 전반에 걸쳐 그들의 새로운 시민권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상속자입니다. 물론, 출생은 아들의 신분을 암시하며, 이는 상속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이러한 새로운 탄생을 바탕으로 그들은 하늘 본향의 상속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들이 새로운 신성한 탄생을 살아야 하고, 하늘 희망의 현실, 새로운 시민권, 희망에서 비롯되는 새롭고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하늘 집의 상속자가 되는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실제로,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적어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과 비유하여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가지고 그곳으로 유배되었던 것처럼, 호세아와 에스겔,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바벨론 유배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들이 항상 유다에서 누렸던 삶의 방식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일종의 종말론적 경험으로의 복귀입니다. 즉,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면 말세의 축복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들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실제로 바벨론의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실제로 여러분이 70년 후에 가게 될 이 새로운 땅에 있습니다. 새로 구축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나그네와 포로로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을 이방인과 포로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희망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망 속에 사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이 바빌론의 시민으로서, 실제로 그곳에 속한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새 집의 시민으로서 바빌론에 산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린 곳에서 살 때 오는 일종의 토착화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갈 이 새로운 집에 속하며, 당신은 그것에 비추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이 거기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선택이 외국인 신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추방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스어는 정확히 그렇게 읽습니다.

1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흠어져 있는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서 1:1에 있는 헬라어 문장의 구문에 따르면 선택받은 또는 선택받은 사람은 실제로 포로를 수식하는데, 이는 다시 그들의 선택의 목적이 순종뿐 아니라 그들도 의미함을 암시합니다. 나는 망명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선거가 외국인 지위에 대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활동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 본향에서의 신성한 탄생에 걸맞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기능적인 선택, 거룩한 삶에 대한 선택, 도덕적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책에는 반복되는 참조가 있으며 여기서는 직접적인 맥락을 넘어 더 넓은 책의 맥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시키려는 반복적인 시도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물론 이미 1:1에서는 분산된 포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종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피 뿌림을 받은 것이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그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24:8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 기슭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피 뿌림을 통해서였습니다. 피 뿌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뿌림은 온 백성에게 있었고, 그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1장 16절에서 너희를 거룩하다고 부르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되었으니 레위기 19장 2절도 인용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저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언급했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수적인 경계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 백성이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다른 종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장 5절에서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이 개념은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지칭하는데, 그는 3:6에서 그들을 사라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요점은 당신이 전체적으로 인간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무관하다거나 그가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초점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사하게 교회 전체에 있습니다.

기업의 강조가 강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이번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 즉 교회의 선택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전서 전체에 걸쳐 단체적인 강조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여기 1장 1절과 2절에서 그가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적용한다면, 그는 교회가 선택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몸의 선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책의 맥락에서 우리는 2장 9절에서 동일한 단어인 *eklektos*가 독자들에게 의해 사용되어 그들을 선택된 족속으로 묘사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이다.

그러므로 선택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여기 다른 곳에서 그는 신권, 국가 및 민족을 언급하면서 선택받은 종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었다는 단어는 개인이 아닌 단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1:1에 대한 추론은 1:1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선택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모든 그룹과 다르게 교회를 선택하셨을 수 있으며, 특히 한편으로는 유배 상태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장 4절, 6절, 9절에서는 예수님이 선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이 단어는 귀하의 사용법과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문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증거가 문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다른 곳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2장 4절, 6절, 9절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결석. 2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에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여러분도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소중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2:9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되었고 이제 그것을 그의 독자인 백성의 선택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2장 4절, 6절, 9절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산 돌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의 방도가 되시느니라.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 및 선택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택의 성격은 기독교인의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에 대한 추론은 그리스도의 선택이 기능적인 것, 즉 산 돌, 구원의 수단과 정죄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기능은 기능이나 서비스를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넓은 책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사이에는 개념적, 논리적 관계가 있고, 선택받은 것과 부르심을 받는 것이 2장 9절에서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오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받은 것과 부르심을 받은 것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개념인 칼레오(kaleo)가 이 책에서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부르심은 거의 항상 어떤 기능, 삶의 형태, 봉사의 형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15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1:14, 다시 1:14, 1:15을 주목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녀처럼 너희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시절의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와 같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나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2:20과 2:21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옳은 일을 행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라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3:9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1:1의 선택이 기능적이며 거룩하도록 선택되었으며 아마도 불의하게 고난을 받고 악을 선으로 갚도록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선택됨, 선택됨, 부르심 사이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이행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내린 결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르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르심과 구원의 경험, 즉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구절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2장 9절과 10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은

자비를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자비를 받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나 5.10에도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한 이 두 가지 언급은 1:1의 선택이 현재의 상태 또는 구원의 경험(2:9, 10)과 미래의 구원(5:10)에 대한 선택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장 9절은 순종이나 의를 가리킬 수도 있다.

다시, 2장 9절의 문맥에 비추어, 그는 여기에서 너희가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 놀라운 일을 선포한다는 이 모든 개념, 특히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해 그분이 앞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종종 윤리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둠의 삶은 죄의 삶이고, 빛의 삶은 의의 삶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둠의 삶을 대적하고 빛의 삶, 의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은 의로움과 순종을 유지하여 영화롭게 될 자격을 갖추라는 부르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선택은 거룩함과 순종의 기능에 관한 것임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맥을 통해 작업했으며, 문맥은 택하심이 그의 교회의 기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고 거룩하여 세상의 악한 문화에서 도덕적으로 구별되어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과 같이 창세 전부터 정하셨나니 그러나 일부 상황적 증거는 구원의 지위와 경험에 대한 선택을 가리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신약성서의 단어 사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클레크토스는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며, 그 사건을 모두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서 한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런 종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어의.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선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한 백성의 선택에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문제는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개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칭의를 개인적인 용어, 즉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의 칭의 교리 전체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당화되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기업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9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두 백성과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실제로 두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장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강조점은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면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백성입니까? 또한 여기서의 선택은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능할 것인가를 뜻하는데, 방법적으로도 eklektos(선택, 선택)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 백성이고 누가 자기 백성이 아닌지를 결정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행위나 혈통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을 근거로 자기 백성이 될 사람과 자기 백성이 되지 않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나 인종의 혈통이 아닌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히 9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개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원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개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어느 쪽이든 갈 수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신약성서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이것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eklektos*는 칠십인역이다.

다양한 히브리어 용어를 번역하면서 *Eklektos*가 사용됩니다. 이는 칠십인역에서 특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 목적을 성취하도록 부르신 공동체로 사용했습니다. 그분의 봉사의 목적과 거룩함의 목적.

이것은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연속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구원과 섬김을 특징으로 하는 하느님 백성의 기능에 대한 공동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요소도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백성을 원수 등으로부터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염두에 두신 목적, 즉 구속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어 용법을 요약하면, 성경적 용법에서 나오는 증거의 비중은 여기서 선택에 대한 기능적 이해 측면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능으로서 거룩함과 순종에 대한 선택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수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어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부 증거는 개인이 구원을 선택했음을 나타냅니다.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관련 개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의 개념입니다. 물론 시간을 내어 이 모든 구절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중 하나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여기에는 실제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예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예정의 대상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물론 실제로 그 아들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것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그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예정을 암시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선택이 거룩함에 대한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증언의 관점에서 신약성서의 다른 여러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교회의 다양한 시대를 대표하는 주석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으며, 물론 존 칼빈이 여기 이 구절에서 선거에 관해 흥미로운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존 칼빈(John Calvin)은 이것이 구원을 향한 선택이며,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베드로의 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예지를 선택의 원인으로 간주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헬라어 교훈은 그것이 비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 칼빈은 또한 미리 아심은 계획이나 목적보다는 냉혹한 작정을 포함한다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격을 무시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해, 그리고 여기서 그의 논평에서 강조하는 이해는 일반적으로 칼빈의 전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역동적인 개인적 관계에서 인간을 향해 기능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격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해설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한 선택에 대한 칼빈의 주장은 아마도 본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 나는 해석의 역사에서 칼빈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전통에 속한 것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을 언급해 왔지만, 구원을 위해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된다는 개념을 채택한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신약성서에서 찾고, 이 구절에서는 찾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구절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연구에서는 대체로 해석의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에 다른 많은 논평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EG 셀윈(EG Selwyn)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쓰여진 훌륭한 영국 주석서로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최고의 주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특징이었고 이제는 기독교 교회로 옮겨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2.9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서신 자체의 증거를 사용하여 이 진술이 에클레토스가 교회 전체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우리의 독립적인 연구를 확증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독일인 Lennard Goppelt의 또 다른 매우 훌륭한 주석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관련하여 관심은 하늘에서 유배된 이 사람들이 처해 있던 세속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선택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추론에 따르면 그 관심은 집단적이고 교회 전체이며 윤리적이며 주변 이교 환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Paul Achtemeier의 Hermeneias 시리즈의 또 다른 훌륭한 논평입니다. 그는 구약성서에서 선택된 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역할은 교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Achtemeier가 지적했듯이 교회의 선택은 창세 이전의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놓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1.2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된 것과 1.20에서 창세 전에 예정된 그리스도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지만, 내 생각에 Achtemeier는 이 연관성에서 유용하고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선택이란,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그리스도가 선택되었다는 것, 즉 그리스도가 탁월하게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서 파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한, 바울의 표현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리스도인의 운명 사이의 비교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그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가 산 돌처럼 우리 자신도 영적인 가족으로 지어져 그분의 선택에 동참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Achtemeier는 상황에 기초하여 교회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선택을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교회는 선택되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원래 이스라엘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저는 해석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한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는 꼭 빠졌습니다. 해석의 역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엑렉토스가 거룩함과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삶으로 교회 전체를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독립성 연구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론을 통해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룩함의 기능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시 설명하지만 위의 다양한 추론을 통해 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라는 추론이 있으며, 거기에서 증거를 인용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저울질해보십시오. 각각의 추론을 바탕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하며 여러분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틀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우리가 이와 같은 구절을 해석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바라건대 투명한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거는 A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석을 종합하는 단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창세 전 영원한 회의에서도 오래 전에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를 암시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야 하지만 다른 모든 그룹이나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은 본질적인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1장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기록되었으니 너희 모든 행실에 있어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니 이는 일상생활의 결정에 본질적인 성격과 그 표현을 포함하며 이는 물론 이 부르심의 재발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참을성 있게 부당한 고통을 견디고 박해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함을 향한 이 선택이 실현되는 수단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과 같은 자녀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널리 퍼져 있는 모든 문화적 선호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함을 향한 이 선택의 모델은 형식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물질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받은 예수입니다. 근본적인 거룩함을 향한 선택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여기 이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자비의 표현으로 이 성화 사업을 수행하십니다.

그분의 크신 자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과 그분의 피 뿌림을 교회 생활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9회기 베드로전서 1:1-2

입니다.